

[후원기관] 동대문경찰서 교경협의회(송준인목사)

주일 오후 찬양예배

- 코로나19 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수요 밤 예배

저녁 7:30 인도: 홍순용 목사

목 도 ----- 다 같 이
찬 송 ----- 430 장 ----- 다 같 이
기 도 ----- 김영희 시무권사

성경봉독 ----- 막 8:27-9:1 (p. 신약 67) ----- 인 도 자
설 교 --- “십자가의 길, 우리의 길” --- 홍 순 용 목사
찬 송 ----- 461 장 ----- 다 같 이
기 도 ----- 인 도 자
주기도문 ----- 다 같 이

*다음 주 기도: 정성숙 시무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00 인도: 홍순용 목사
말씀: 시편 1권 강해

금요 밤 예배

- 코로나19 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 봉사위원

8월	안내 및 헌금 위원	교회 정문	1층 현관	본당 입구	예배실
		박익수 집사 조영희 집사	배금환 시무집사 변형남 시무권사	김성민 시무집사 정성숙 시무권사	변형남 시무권사 정옥자 시무권사
		계 수	봉 헌		
		최현철 / 김수길	1부 박승용 시무집사	2부 김경선 시무집사	

향기로운 예를

십 일 조	김순호(박옥란) 김홍길(유경연) 도기중(김행자) 배금환(노정미) 양해표(원은신) 이연호(문영숙) 최윤석(강정화) 한상우(김예스더) 신순혜 이금석 이순자A 정옥희 최성경 최성연
감사헌금	김지호(지수지호) 도기중(김행자) 최윤석(강정화) 김귀숙 박인애 원은신 이순자A 정옥자
생일감사	이순자A 하상신
심방감사	한옥숙
특별감사	이순자A
선교헌금	최윤석(강정화) 김순호 노정미 배금환 신순혜 원은신 유경연 이금석 이순자A 이 훈 정옥희 조범조 최현주
건축헌금	김순호 신순혜 이금석 이순자A 이 훈 정옥희
증식헌금	정옥희

※교회 헌금 온라인 번호: **농협 100051-51-074600 (예금주: 동산교회)**
※헌금자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주 증식헌금

- 정옥희 은퇴권사님 가정 (생일 감사)
- 최임숙 시무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2021년 성경읽기]

1독: 김길자 권사 (1독)	2-3독: 이옥주 집사 (2독)	4독: 김길자 권사 (2독)
5독: 김길자 권사 (3독)	6독: 장정국 장로 (1독)	7독: 이병희 장로 (1독)
8독: 박영희 권사 (1독)	9독: 정옥희 권사 (1독)	10독: 김귀숙 권사 (1독)
11독: 김경숙 권사 (1독)	12독: 이순자A 권사 (1독)	13-17독: 김길자 권사(8독)

주/간/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본문: 계 21:9-16)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과 두 짐승과 용 곧 사탄이 멸망하는 날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만물이 새롭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성될 천국은 우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다(9-10).

천사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천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신부로 묘사하며 우리에게 대한 묘사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역시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됨을 묘사하게 됩니다.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예루살렘의 빛과 성문과 성곽이 묘사되다(11-14).

11절 이하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결국 신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그 영광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의 빛과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벽옥과 수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 열두 문, 열두 천사, 그 문 들 위에 이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라는 것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상징성이 12라는 숫자에 나타납니다. 열두 문, 열두 천사, 열두 지파, 열두 기초석, 열두 사도, 열두 이름.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3.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다(15-16).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은 앞서 11장 1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 40:3-5절, 스가랴 2:1-5절에 나옵니다. 성전 측량의 의미는 모든 재난에서 보호하고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자녀들은 측량되어 보호 받게 되는 것입니다(윌리엄 헨드릭슨). 성은 네모 반 듯 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 같습니다. 한 스다디온이 192m입니다. 12,000스다디온×192m=2,304km가 됩니다. 남북한의 길이가 1178km정도 되니 이 길의 두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000은 아주 많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은 아주 많은 성도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측량을 통한 숫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의 길이,너비,높이가 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45:1-5절의 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에서 지성소의 모양이 정사각의 네모 반듯한 모양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지성소의 미래적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게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약에 예언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임을 알고 코로나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